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오늘부터

훈련기간 2주로 확대  
불시훈련체계 첫 도입  
국민참여도 활성화  
지진 대응 강화훈련  
화재사고 대피훈련도

전북도, 내일 정읍시  
주민참여 화재대응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8일부터 전국에서 진행된다.

7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8일부터 18일까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다. 올해 14년 차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는 30개 중앙부처, 245개 지방자치단체, 359개 공공기관·단체 등 총 634개 기관이 참여한다. 1072회의 훈련이 실시된다. 현장훈련은 548회, 토론훈련은 524회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이 1주에서 2주로 확대됐다. 1주차에는 전년도 우수기관들이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타 기관 훈련 담당자들이 참관단으로 참여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다.

불시훈련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83개 기관이 참가해 불시 화재대피 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참여기관들은 자체 소방계획 등에 따라 불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장비 등 안전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행안부와 각 시·도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불시훈련 기관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해 훈련 실태를 파악한다. 매년 훈련 첫째날 일괄적으로 실시되던 비상소집 훈련을 올해는 15~17일 중 불시에 진행한다.

국민 참여도 활성화한다. 국민 스스로 위급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



웅단처럼 깔린 진안 원연장꽃잔디

진안군 진안을 원연장(국도 26호) 꽃잔디동산의 화려한 꽃잔디가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전한국훈련 체험단을 지난해(1288명) 보다 2배 이상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단은 훈련기획부터 토론훈련, 현장훈련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체험수기 등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각 시·군·구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화재에 취약한 중·소규모 시설 3~4개를 선정해 관할 소방서와 함께 이들 시설들에 대해 화재대피 훈련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약자 거주시설 대상 재난대피 훈련도 지난해 시·도별 1개소에서 2개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각 기관별 훈련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도 3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각종 훈련에 적용했다. 이를 위해 '증강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재난상황 대응훈련과 '원클릭 재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상황전파 훈련 등이 이어진다. 드론, 바디캠 등 정보기기 활용도 높인다. 이어 정부는 지진 발생시 국민 스스로 대처하는 역량과 기관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16일 오후 1시50분부터 민방위의 날과 연계해 국민 참여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당일 재난위험경보(사이렌 및 음성안내)와 TV·라디오를 통한 훈련 상황을 전파한다.

지진대피 훈련에는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각 시·군·구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 단지 등 중점훈련 대상을 1개소 이상 선정해 시범훈련을 벌인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98개 기관은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지진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별로 화재사고에 대한 긴급대응·대피훈련에 집중한다. 전북도는 9일 정읍시 신대인 실내체육관에서 주민참여 다중이용시설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나 두개 이상 서로 다른 유형의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종·복합재난 훈련도 집중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훈련기간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앙평가단을 구성해 각 기관들의 훈련실태를 평가한다. 우수 기관과 개인에게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며 "훈련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중 역량교육과 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태풍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 벼 재해보험 가입으로 대비

전주시, 6월 29일까지 보험상품 지역농협 통해 판매  
보험료 절반, 국가 부담... 전북도·전주시 30% 지원

전주시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6월 29일까지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벼 재해보험 상품을 각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전주시와 전북도가 30%를 지원해 농업인들은 나머지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벼 품목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병충해에 의한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기존 병충해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에 깨씨무늬병과 먹노린재가 추가돼 보장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주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 면적은 196농가 243ha로, 이는 전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415ha의 59%에 해당된다. 시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400여 농가에 총 2억7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큰 자연재해가 없어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많은데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면서 "농번기에 바쁘시겠지만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벼 이외에도 오는 11월까지 사과, 배, 감 등 품목별로 재해보험 상품이 판매되며,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69)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반

## 전주시립도서관 사물함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

시, 시스템 구축·이달부터 시행  
첫 시행 평화도서관, 2분만에 마감

전주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사물함 이용 신청을 위해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전주시립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사물함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 온라인 사물함 신청 시스템을 구축·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물함은 무거운 책을 매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시설로, 수요가 많은 도서관의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사물함을 배정받기 위하여 접수일 새벽부터 긴 줄을 서고 기다려야만 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사물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지난 1일 평화도서관 사물함 이용신청시 최초 시행했다. 그 결과, 장애인과 노약자용 사물함을 제외한 180개 사물함이 접수 개시 2분 만에 모두 신청이 완료됐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물함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이어야 하며, 각 도서관별 사물함 신청접수기간에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기존에 평화도서관의 경우 사물함 신청을 위한 줄이 이른 새벽부터 도서관 옆 신청공일까지 이어져 있어 안타까웠다"면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사물함 이용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선거법 위반 혐의' 황숙주 순창군수, 경찰 조사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숙주 군수에 대해 지난 6일 약 3시간 가량 조사를 했다.

앞서 순창의 한 주민은 황 군수와 공무원 10여명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황 군수에 관한 홍보글과 업적 등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였고, 어제(6일) 황 군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검찰과 협의도 해야하고 더 조사할 것이 남아있어 아직 무리

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구로·광고문의 063-288-9700

## 공한지에 무료주차장 조성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중화산2동 한신코아아파트 주변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의 규모는 면적 1,321㎡에 주차면 33면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조성되며, 오는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동취재반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